

산업사회의 발전, 무분별한
서구문물 도입의 영향, 다른 가치
관의 혼란, 성개발육성의 결
과를 요하는 미혼자가 증가한
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다.

최근 한부모성개발원(원장
金炯德)은 미혼모의 실태와 발
생원인을 분석하고 미혼모발생
을 예방함으로써 여성하기 위한
대책으로 「미혼모 발생 예방
을 위한 프로그램」을 개발했
다.

73년 1백60명의 불과하던 미
혼모가 80년 3천1백46명, 84
년 1만1백42명으로 폭발적
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
불구하고 아직 보수적인 우
리 사회에서 미혼모는 사회
적 제재와 처사상과 함께 정신
적 신체적으로도 이불안한 상
태에 놓여있으며 미혼모에게서
태어난 아이는 양육자가 나
쁘지 않은 부모가 있을 수 없는
정부가 양육한다 해서 미혼모
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사회
적 책임은 전적으로 바르게 살
아가기가 어렵다.

여성개발원은 최근 전국의
양육기관 부도인양육기관과 미혼
모육성보조시설에의 산발적인
회해자나 보호를 받고있는 미혼
모 1천4백46명(출생년도별)을
「한부모의 양육실태조사」에
바탕으로 미혼모의 양육실태(84.6
%)이 15~24세 미혼모 24세
미혼모 20~24세 미혼모 24세

10대가 25%

未婚母



미혼모의 양육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. 미혼모의 양육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. 미혼모의 양육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.

59.8%로 가장 많지만 10대
도 24.9%나 됐다. 또 미혼
모의 직업은 보타도 생산직
근로자 36.9%, 서비스직 21.1%, 사무직 19.4%, 학
생 10.9%로 대부분의 미혼
모가 하위직 여성근로자로 나
타났다.

이 조사결과를 보면 교육 생
활수준이 낮을수록, 결혼가정인
수족, 부모의 선택도가 폐쇄적
이고 미혼모 당사자의 성지식
이 낮을수록 미혼모가 될 가
능성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
있다.

예방교육 허술... 4년새 3배로 늘어
생산직 근로자가 37% 학생도 11%

의하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
실제적인 미혼모 예방교육을 거
두기가 힘들다.

이같은 기존의 교육과는 달
리 이번의 새로 개발된 프로그
램은 학생 근로청소년 및 학부
모까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
성지식을 습득시키고 진정한
성태도를 갖게하는 것을 목적
으로 한다.

여성개발원에서 제시한 새 프
로그래밍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
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강화다.
부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
화하고 저소득 및 결손가정에 대
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.
둘째는 학교의 성교육 강화로
학교생활지도제를 확립하고
교사자질을 향상시키며 학교의
성교육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
다는 것.

세째는 건전한 성문화관 정
립을 위한 매스컴 역할의 증대
다. 청소년을 위한 사회일반의
성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
TV 전지들에서 성교육을 실
시해야 한다는 것. 넷째는 교회
불원 청소년 및 여성단체의 기
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. 이
밖의 세는 특히 고교생과 부모
를 대상으로 한 양육교육이나 토
론회 등을 통해 성숙한 婚前 관
계 인식선별 피임 유산술의
관련 부속적인 지식과 정보를
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.

〈鄭星姬 기자〉